

傳統建築의 들어열개 窓戶形式 變遷에 관한 研究

- 廳房間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transition of types of Deul-E-Yul-Gae windows and doors in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 focused on the wall between Dae Chung and Bang -

鄭 明 燮 *

Chung, Myung-Sup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ransition of types of Deul-E-Yul-Gae(lift up) windows and doors in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which was on the wall between Dae Chung and Bang. As the result of studying and analysizing the transition of those, the following conclusion could be obtained.

The first type was to attach windows on the middle of Deul-E-Yul-Gae (lift up) doors, the second type to remove windows attached on that, or be (Maeng-Jang-Jee) dark paper covered door annexed Bool-Bal-Gee, and the third type to be (Myung-Jang-Jee)bright paper covered door of bottom panel slender ribs which was the most openness.

Finally, we could understand the transition which would be changed from the type of (Maeng-Jang-Jee) dark paper covered lift up door with attached windows that had a solemn and closed mood to the type of (Myung-Jang-Jee) bright paper covered lift up door of bottom panel slender ribs that had a pliable and open mood .

1. 研究 背景 및 目的

들어열개 창호란 외쪽의 경우에는 그냥 들어서 열고 두 짝 이상의 분합문일 경우에는 문짝을 분합 수에 따라 접어서 들어 올리는 것으로,

일명 들문 또는 들장지라고도 한다. 들어열개의 문짝을 들어 올려 보꼭(樑上, 지붕보의 상부 또는 지붕밑 부분)에 달아맨 들쇠에 매달면 그 순간부터 건물의 내·외부공간이 한 공간으로 통합된다. 이같은 韓國傳統建築의 들어열개 창호는 대개의 경우 실내 공간 상호간의 확장, 실내와 실외공간 즉 건축공간과 자연과의 융합도모 등을 위한 목적으로 中·上流住宅, 寺刹, 鄕校,

· 이 연구는 1996년도 상주산업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정희원, 상주산업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書院建築 등의 일부공간¹⁾에 시설되어 있다.

특히 이러한 들어열개 창호는 동일 문화권의 中國·日本建築²⁾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창호형식으로 韓國傳統建築物 고유의 특성을 일깨워 주는 중요한 구성요소라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창호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들어열개 창호가 언제 어떠한 형태로 발생하여 발전·계승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 몇 채 남지 않은 고려시대 건축물³⁾에 시설되어 있음을 통해서 그 사용시기가 고려시대 이전임을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들어열개 창호의 발생에서부터 현재의 모습에 이르기까지의 종합적인 史的考察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 필요한 고려시대 이전의 遺構와 史料들이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굴되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수행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전체를 읽을 수 있는 연구를 차후 과제로 남기고 총체적 연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조선시대 이후 廳房間 경계벽에 시설된 들어열개 창호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한국전통건축의 입면적 특징 부여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다양한 창호들 중 하나인 들어열개 창호의 대체적인 변천 경향과 그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체계화 한 것으로, 이번 연구 역시 종교⁴⁾와 같은 목적을 두고 다루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축적될 경

우 韓國傳統建築 窓戶의 실체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 細部形式을 통한 建築年代 평가시 보조자료의 한 부분으로, 또 傳統建築의 復元 資料로도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 研究 對象 및 方法

이 연구의 대상은 鄕校 明倫堂과 書院 講堂 그리고 이들과 비슷한 평면형식과 기능⁵⁾을 갖고 있는 주택의 사랑채·별당·정자와 서당·재실의 강당(이하 기타 건축물이라 함) 등을 다루었다.

향교는 대구·경북지역의 43개소, 서원은 궤철되지 않은 남한 전역의 23개소⁶⁾와 궤철서원 2개소를 포함한 25개소, 기타 건축물은 경북지역 중심의 건물 중에서 18C 이전⁷⁾에 속한 20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 연구의 조사 대상은 88개소가 되었는데, 이들 중 심한 변형으로 인해 전형성을 크게 벗어나는 것 등을 제외한⁸⁾ 나머지에서 청방간에 들어열개 창호를 시설한 24개소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청방간을 우선적 대상으로 한 것은 다른 부분보다 이용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그동안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선정된 24개소 대상건물의 들어열개 창호형식을 면밀히 조사하여 채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형식별로 분류하여 고찰한 후 이들을 조성연대별로 분류·분석하고 그 변천경향과

- 1) 주택·향교·서원은 대청과 방 및 마당 사이에서, 사찰은 정면 동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 2) 중국 : 건물의 외벽 일부에 드물게 사용한 支摘窓이란 것이 있는데, 이는 조그마한 들창형식으로 우리나라의 들어열개 창호와 는 구조와 모습이 상당히 다르다.
일본 : 주택의 2층 외벽창의 덧붙임으로 시설하여 차양기능을 갖게한 것이 드물게 보이는데, 이것 또한 한국의 들어열개 창호와 는 다르다.
- 3) 부석사 무량수전 및 조사당, 수덕사 대웅전, 흥남 맹씨행단 등
- 4) 정명섭, 조선시대 향교 및 서원건축의 청방간 개구부형식 변천에 관한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1992, pp. 1~2.
——, 전통건축 대청 배면 개구부형식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제5권 제2호, 1994. 12, p. 30.

- 5) 기타 건축물들은 모두 유교적 덕목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그 평면형식과 기능이 향교 명륜당·서원 강당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하다. 즉 이들 건물에서도 강학(자제교육 등)과 율림의 토론 및 회의의 교제 등의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 6) 36개소의 書院·祠 중에서 先賢 享祀가 주기능으로 건립시부터 강당을 두지 않은 13개소 祠를 제외하였다.
- 7) 시기를 18C 이전으로 한정 한 것은 향교와 서원의 건물 중 건축연대(창호조성연대)가 18C 이전에 속한 것이 적음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 8) 제외한 이유는 변형이 심하여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고, 또 현재의 모습과 기록연대와의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복원할 수 있는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1. 대상 건축물

No	建 物 名	創 建 年 度	所 在 地	用 途	備 考
1(복원)	眞寶鄕校	1404	경북 청송군 진보면 경덕동 221-1	명륜당	도지정문화재 201호
2	新寧鄕校	1432	경북 영천군 신령면 화성리 525	명륜당	지방유형문화재 168호
3	淸河鄕校	1398	경북 영일군 청하면 덕성리 190	명륜당	
4	陶山書院	1575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동 680	강당	사적170호, 보물210호
5(복원)	金烏書院	1570	경북 구미시 선산읍 원리 124	강당	도기념물 60호
6	玉山書院	1572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강당	사적 154호
7	道東書院	1568	경북 달성군 구지면 도동동 36	강당	보물 350호
8(복원)	魯岡書院	1675	충남 논산군 광서면 옥강리 227	강당	지방유형문화재37호
9	紹修書院	1543	경북 영풍군 순흥면 내죽리	강당	사적 55호
10(복원)	玉洞書院	1716	경북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547	강당	지방유형문화재55호
11(복원)	西岳書院	1561	경북 경주시 서악동 616	강당	도기념물 19호
12	筆岩書院	1590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37	강당	사적 242호
13	遜岩書院	1634	충남 논산군 연산면 임리 74	강당	지방유형문화재 8호
14	義城金氏宗宅	미상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동 280	사랑채	보물 450호
15	靑巖亭	1526	경북 봉화군 봉화읍 거촌1리 148	정자	사적 및 명승 3호
16	濯淸亭	1541	경북 안동시 예안면 오천동 산28-1	정자	유형문화재 26호
17	後彫堂	1560	경북 안동시 예안면 오천동 산28-1	별당	유형문화재 27호
18	六宜堂	1619	경북 경주군 외동읍 제내리 322	별당	유형문화재 263호
19	懷德同春堂	1643	충남 대전시 동구 송채동 192	별당	보물 209호
20	務安朴氏 武毅公派宗宅	1644	경북 영덕군 축산면 도곡1동 127	사랑채	민속자료 74호
21	孝谷齋舍	1673	경북 상주시 공성면 효곡리 516	강당	유형문화재 256호
22(복원)	追遠堂	1700	경북 청송군 현서면 도동 419	강당	
23	鶴樞亭 및 正寢	1650	경북 영양군 영양읍 감천동 604-2	정자	민속자료 64호
24	追遠齋 및 祠堂	1656	경북 예천군 용문면 상금1동 342	강당	민속자료 82호

특성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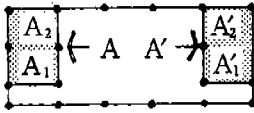
한편 현장조사는 평면형식에 따라 기준부호(그림1)를 부여하여⁹⁾ 입면구성(창호의 면구성 및 틀맞춤)을 중심으로 줄고¹⁰⁾에서 밝힌바와

같이 現狀과 함께 변형 정도와 흔적 등을 세밀히 조사하고, 또 창호 조성연대¹¹⁾와 관련된 記文, 懸板 등을 빠짐없이 탐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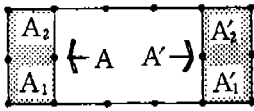
9) 기준부호는 방의 위치에 따라 A(좌측방)와 A'(우측방)로 크게 구분하고, 柱間에 따라 $A_1 \cdot A_1$ (건물의 앞쪽면 주간)과 $A_2 \cdot A_2$ (건물의 뒤쪽면 주간)로 세분하였으며, 주간이 한 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A(좌측방)와 A'(우측방)로 하였다.

10) 정명섭, 앞 논문, pp. 3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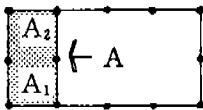
11) 창호 조성연대는 건축 연혁 자료에서 나타난 최종의 건축시기(이진, 환건, 재건, 중건, 중창 등)를 우선적 추정연대로 채용하고 만약 현재 건물의 세부형식들이 추정건축연대와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거나 또는 개구부 자체만 개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성시기를 중·보수시기와도 결부시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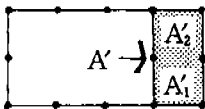
전퇴양방식



후퇴양방식



좌측편방식



우측편방식

그림 1. 대상 건물의 평면형식에 따른 기준부호 예시도

3-1. I形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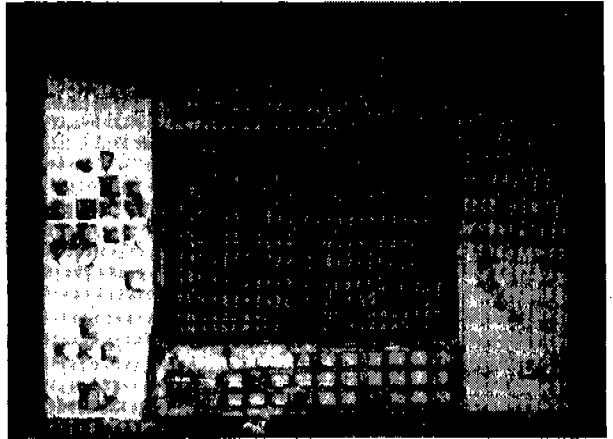


사진 1. 탁청정

(3분합들어열개 문 : 맹장지, 띠살영쌍창 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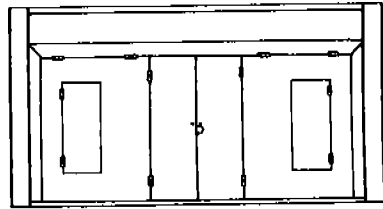


그림 2. 도산서원

(4분합들어열개 문 : 맹장지, 외여닫이창 부설)

이 형식은 청방간 경계벽을 한 칸 또는 두 칸으로 구분한 柱間에 들어열개 창호가 시설되어 있고, 문짝 가운데에 창이 부설된 것이다. 이 형식을 취한 대상 건물은 11개소로 이들 중에서 금오서원과 추원당은 옛 흔적¹²⁾을 통해서 복원하였다.

부설창은 주간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외쪽들문짝 또는 분합 들문 중에서 들려지는 문짝에 나

12) 금오서원 : 현재 자기 외여닫이문과 외쪽들창이 나있는 A₁과 A₂ 그리고 A'₁의 세 개구부 윗틀에 들어열개 문을 달았던 옛 들꺼귀 흔적이 남아 있음.

추원당 : 현재 자기 3분합여닫이문과 외쪽 및 2분합여닫이문으로 되어 있는 A'₁과 A'₁의 윗틀에 A'₁의 들어열개 들꺼귀와 같은 위치에 그 흔적이 남아 있음.

3. 들어열개 窓戶形式의 分類와 그 特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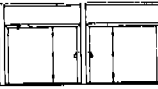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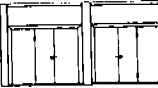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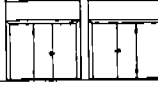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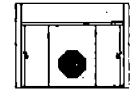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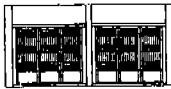




대상 건물의 청방간 경계벽에 시설되어 있는 들어열개 창호의 面構成形式을 중심으로 그 구성요소들의 공통인자를 찾아 분류한 결과 세 형식으로 구분되었다. (표2)

표 2. 들어열개 창호형식의 총괄표

* 는 복원형식, (연대)는 창호의 추정조성연대임

형식	건물명 (연대)	창호형식		창호종류	창호를맞춤	비 고
		A	A'			
		A ₁ +A ₂	A' ₂ +A' ₁			
도산서원 :강당 (창건:1575)			4분(2+2) 들정자살 문 (맹장지)	上:연귀 下:맞넛	주간이 한 칸으로 되어 있음. 좌·우측 2분합:외여단이 정자살 창 부설	
금오서원* :강당 (이건:1602)			A ₁ ·A' ₁ : 3분(2+1) 들정자살 문(맹장지) A ₂ ·A' ₂ : 외쪽들정자살 문 (맹장지)	上:연귀 下:맞넛	A ₁ ·A ₂ ·A' ₁ : 복원(들꺼귀흔 적) A ₂ ·A' ₂ : 외여단이 떠살 창 부 설 (현상-A ₁ :외여단이 굽넛정자 살불문, A ₂ : 외쪽들떠살창)	
옥산서원 :강당 (창건:1572)			A ₁ ·A' ₁ : 2분들정자살문(맹장지) A ₂ ·A' ₂ : 외쪽들정자살 문(맹장지)	上:연귀 下:맞넛	A ₂ ·A' ₂ : 외여단이 떠살 창 부 설	
청암정 :정자 (창건:1526)			A ₁ : 2분(1+1) 들정자살 문(맹장지) A ₂ : 2분들 정자살 문 (맹장지)	上:연귀 下:맞넛	A ₁ ·A ₂ : 외여단이떠살 창 부설	
탁침정 :정자 (창건:1541)			A ₁ : 3분(1+1+1) 들정자살 문(맹장지) A ₂ : 3분(2+1)들 정자살 문(맹장지)	上:연귀 下:연귀	A ₁ : 떠살 영쌍창 부설 A ₂ : 외여단이 떠살 창 부설	
후조당 :별당 (창건:1560)			A' ₂ : 2분들 정자살 문 (맹장지) A' ₁ : 외쪽들 정자살 문 (맹장지)	上:연귀 下:맞넛	A' ₁ : 떠살 영쌍창 부설	
육의당 :별당 (창건:1619)			A ₁ ·A' ₁ : 3분(2+1)들굽떠살 문 (맹장지) A ₂ ·A' ₂ : 외쪽들정자살 문 (맹장지)	上:맞넛 下:맞넛	A·A': 문틀 개변 A ₂ ·A' ₂ : 외여단이 떠살 창 부 설	
회덕동춘당 :별당 (창건:1643)			A:4분(2+2) 들정자살 문 (맹장지)	上:맞넛 下:맞넛	주간이 한 칸으로 되어있음. 좌측2분합 : 외여단이정자살창 부설 우측2분합 : 외여단이아자살누굽 창 부설(우설)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백:사랑채 (창건:1650)			A ₁ : 외쪽들 정자살 문 (맹장지) A ₂ : 2분들정자살 문 (맹장지)	上:맞넛 下:맞넛	A ₁ ·A ₂ : 문틀 개변 A ₁ : 쌍여단이 떠살 창 부설	
효곡재사 :강당 (창건:1673)			A ₁ ·A' ₁ : 외 쪽들굽정자 살 문 (맹장지) A ₂ ·A' ₂ : 2분들굽떠살문 (맹장지)	上:안연귀 下:맞넛	A ₁ ·A' ₁ : 외여단이 떠살 창 부 설	
추원당* :강당 (창건:1700)			A ₁ A' ₁ A ₂ : 2분들굽정 자살 문 (맹장지) A' ₂ : 3분 (1+2)들굽정 자살 문 (맹장지)	上:연귀 下:맞넛	A ₁ A ₂ : 복원(들꺼귀 흔적) (현상-A ₁ : 3분여단이굽떠살 문 A ₂ : 외쪽 및 2분여단이굽떠살 문) A ₁ A' ₁ : 외여단이떠살 창 부설	

* 분(분합), 들(들어열개), 불(불발기), 굽(굽넛)

형식	건물명 (연대)	창호형식		창호종류	창호를맞춤	비고
		A	A'			
		A ₁ +A ₂	A' ₂ +A' ₁			
II	진보학교* : 명륜당 (이전:1896)			A ₂ A' ₂ : 4분 (2+2)들정자살물 문 (맹장지)	상:맞댄 下:맞댄	A ₂ A' ₂ 창호의 바깥면에 창호지를 바른 흔적이 남아 있음(현상 : 맹장지)
	신령학교 : 명륜당 (중건:1852)			A' ₂ : 2분들 정자 살 물(맹장지) A' ₁ : 외곽들 정자살 물(맹장지)	상:맞댄 下:맞댄	A ₂ : 근년 개체
	도동서원 : 강당 (이전:1605)			A ₁ A' ₁ : 외곽들정 자살물(맹장지) A ₂ A' ₂ : 2분들정 자살 물(맹장지)	상:맞댄 下:맞댄	
	노강서원* : 강당 (중수:1883)			A ₁ A' ₁ A ₂ A' ₂ : 2분들정자살 물	상:안연귀 下:맞댄	A ₂ A' ₂ 의 문 옷틀에 옛 돌 쩌귀 흔적과 A ₂ ·A' ₂ 측 보 쪽에 옛 돌쇠가 남아 있음. A·A'의 문틀 및 문짝 개변 (A ₂ A' ₂ 의 현상 : 벽체)
	소수서원 : 강당 (중건:1602)			A' ₂ A' ₁ : 2분들정 자살 물 (맹장지)	상:연귀 下:맞댄	
	옥동서원* : 강당 (창건:1716)			A ₁ A' ₁ A ₂ A ₂ : 3분(1+2) 들정자살 물 (맹장지)	상:연귀 下:맞댄	A·A'의 문짝 바깥면에 창호 지를 바른 흔적이 남아 있 음. (현상 : 맹장지)
	둔암서원 : 강당 (이전:1970)			A' : 3분들정자살 물 문 (맹장지)	상:맞댄 下:맞댄	
의성 김씨 종 택 : 사랑채 (복구:1590)			A' ₂ : 4분(2+2) 들정자살물 문 (맹장지)	상:맞댄 下:맞댄	A' ₂ : 문틀 개변	
III	청하학교 : 명륜당 (중수:1964)			A ₁ : 4분(2+ 2) 들굽띠살 물 (맹장지)	상:맞댄 下:맞댄	A ₁ : 문틀과 문짝 개변
	서악서원* : 강당 (중수:1810)			A' ₁ A' ₂ : 3분(1+2)들 굽띠 살 물 (맹장지)	상:맞댄 下:맞댄	A'의 문 옷틀에 옛 돌쩌귀 흔적과 A'쪽 보쪽에 옛 돌 쇠가 남아 있음. (현상 : 3 분여달이굽띠살 물)
	필암서원 : 강당 (중건:1941)			A : 4분(2+ 2)들 굽띠살 물(맹장지) A' : 4분(2+ 2) 들굽띠살물 문 (맹장지)	상:맞댄 下:맞댄	A와 A'의 세살 꾸밈새가 다름.
	학초정 및 정침 : 학초정 (창건:1650)			A ₁ A ₂ : 2분들굽띠 살 물 (맹장지)	상:맞댄 下:맞댄	
	추원재 및 사당 : 강당 (창건:1656)			A·A' : 2분들굽띠 살 물 (맹장지)	상:연귀 下:맞댄	

있다. 창이 부설된 문짝은 필요시¹³⁾ 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 벽체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문이 닫혀 있을 경우에는 벽체에 나 있는 창 의 기능만 갖게 된다. 특히 문짝이 맹장지¹⁴⁾인 경우¹⁵⁾는 그 모습이 마치 회벽에 창을 낸 것처럼 보인다. 한편 이와는 달리 I 형식 중에서 가장 늦은 시기에 나타난 효곡재사와 추원당의 문 짝은 맹장지¹⁶⁾로 그 모습이 맹장지인 경우보다 개방적이다.

부설창은 대부분 밤 바깥으로 열리는 외여단 이인데 유별나게 탁청정과 후조당은 보기드문 古式¹⁷⁾의 櫺雙窓으로 꾸며져 있어 눈길을 끈다.

한편 무안박씨 무의공과종택의 창도 앞의 두 건물처럼 쌍창이나 가운데설주(櫺)가 없다. 이는 비록 한 예에 불과하지만 벽체에 시설한 櫺雙窓처럼 가운데 설주가 17C 중반 이후부터 점차 사라지고 있음¹⁸⁾을 부여주는 흔치 않은 예로 생각된다.

이러한 부설창은 맹장지인 도산서원과 회덕 동춘당¹⁹⁾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맹장지 로 구성되어 있다. 맹장지인 두 건물의 경우는 폐쇄시 창방간 경계벽에 창호가 시설되어 있지 않은 회벽처럼 보이는 것으로 강한 폐쇄성을 띠 게 된다.

들어열개 문짝 중에서 평소 출입문으로 이용

- 13) 대개의 경우 들어열개 문은 하계시 피서와 행사 시 넓은 공간이 필요할 때 이용되고 있다.
- 14) 문을거미와 살의 안팎면을 모두 두꺼운 종이로 바른 문.
- 15) 도산·금오·육산서원, 청암정, 탁청정, 후조당, 육의당, 회덕 동춘당, 무안박씨 무의공과 종택이 그러함.
- 16) 문을거미와 살의 안쪽(방쪽)면에만 창호지를 바른 문.
- 17) 영쌍창이 . . . 고려시대에도 사용되었던 . . . 조선시대에는 초기에서 중기에 이르는 . . . 많은 건물에 널리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窓門樣式으로 생각된다.(金一鎭, 韓國建築의 櫺雙窓에 관한 研究, 東國大, 博士學位論文, 1988, P. 172.)
- 18) . . . 17세기 후반부터 영쌍창의 유례가 줄어들 기 시작하고, . . . (김일진, 위논문 p. 172.)
- 19) 맨 우측 들문짝 좌하부에 나있는 누꿈창은 후설 된 것임.

되는 여단이 문짝은 대부분 맹장지 굵널머살 문 이나 이른 시기의 도산서원·청암정·후조당 등 이 폐쇄적인 맹장지로 되어 있음이 주목된다.

창호를 맞춤은 上²⁰⁾ 연귀·下²¹⁾ 맞덴맞춤이 6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上·下 맞덴맞춤이 3개소, 上안연귀·下맞덴맞춤과 上연귀·下연귀맞춤이 각기 1개소로 나타났다. 이들 중 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유일하게 上·下 연귀맞춤을 한 탁청정으로 그 수법이 독특하다. 창틀 은 밀틀에 쉽게 연귀맞춤을 할 수 있으나, 문틀 은 일반적으로 턱이 낮은 피중방을 밀들로 하기 때문에 연귀수법을 베풀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청정의 경우는 피중방 위에 부재를 덧 대어 모양을 내었다. 이는 미려함이 돋보이는 연귀맞춤을 고집스럽게 채용하여 건물의 격을 높이 고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²²⁾

이상에서 살펴본 I 형식은 들문짝 가운데에 부설창을 낸 것으로, 이들은 16C 초에서 18C 初의비교적 이른 시기에 나타나고 있다.

3-2. II形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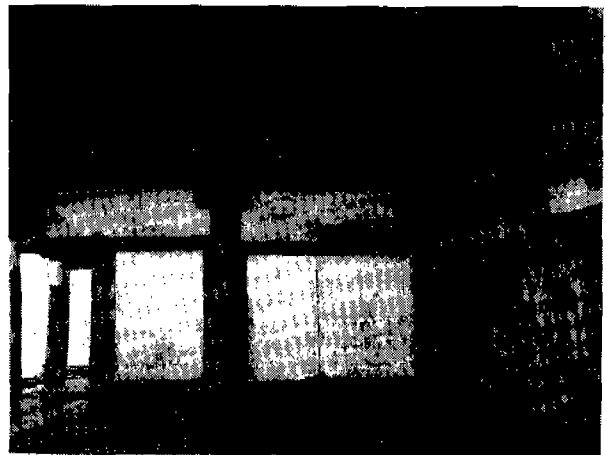


사진 2. 도동서원
(외쪽+2문합들어열개 문 : 맹장지)

- 20) 좌·우 문설주와 웃틀과의 맞춤
- 21) 좌·우 문설주와 밀틀과의 맞춤
- 22) 탁청정의 세살은 건실한 부재를 빼어난 솜씨로 등밀이 한 것으로 여는 창호보다 고격스럽고 고 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범살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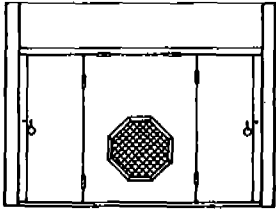


그림 3. 문암서원
(3분합들어열개 문 : 맹장지, 불발기)

이 형식은 청방간 경계벽을 구분하고 있는 주간에 맹장지인 들어열개 문을 시설한 것으로 8개소에서 나타났다. 이들 중에서 진보향교와 노강·옥동서원의 모습은 옛 흔적²³⁾을 통해서 복원하였다. 주간 전체²⁴⁾를 차지하고 있는 외작·2분합·3분합·4분합의 정자살²⁵⁾ 들문쪽에 안팎이 두꺼운 종이로 마감되어 있다. 3분합 들문 중에서 문암서원의 것은 일반적인 옥동서원 것과는 달리 양쪽의 출입 여단이 문짝을 가운데 문짝쪽으로 접어 들어올리는 개폐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보기드문 예²⁶⁾로 눈길을 끈다. 이러한 II형식은 부설 창이 없을 뿐 맹장지인 I형식과 마찬가지로 폐쇄시 창호를 시설하지 않은 회벽처럼 보이는 입면성을 띠면서 폐쇄감을 느끼게 한다. 한편 이들 중에는 문쪽에 불발기²⁷⁾를 둔 것이 3개소²⁸⁾ 있는데, 그 모습이 일견 I형식의 부설 창처럼 보인다. 그러나 불발기는

창의 3대 주요 기능인 채광·환기·조명 중에서 채광만 갖고 있는 것으로 부설창과는 그 기능과 구조가 다르다. 이와 같은 불발기 문은 일반적으로 울거미를 사각·육각·팔각형 등으로 짜고 그 속에 교살(또는 녁살)을 베풀어 의장적 효과를 갖게 하는데, 주로 대청과 방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창호를 맞춘은 上·下 맞댄맞춤이 5개소, 上연귀·下맞댄맞춤이 2개소, 上안연귀·下맞댄맞춤이 1개소로 上·下맞댄맞춤이 가장 많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맹장지 들어열개 문의 II형식은 16C 후반에서 20C 후반에 이르기 까지 그 분포가 넓다.

3-3. III形式



사진 3. 학초정
(2분합들어열개 굽넝따살 문 : 명장지)

- 23) 진보향교(A₂·A'₂)·옥동서원(A·A') : 문짝 바깥면에 종이를 바른 흔적이 남아 있음.
노강서원(A₂·A'₂) : 문 옷틀에 옛 돌쩌귀 흔적과 A₂·A'₂ 쪽 보꼭에 옛 돌쇠가 남아 있음.
- 24) 진보향교는 타 건물과 달리 주간의 일부(건물 뒷편쪽에 주간의 1/5정도)를 벽으로 막고 그 나머지에 문을 시설하고 있다. 그 폭이 방 내부의 벽장길이와 같은 것으로 보아 이는 벽장으로 인해 불편하게 되는 문의 개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 25) 맹장지 문짝은 세살을 띠살보다 종이의 부착면이 많은 井字살로 꾸며 그 내구성을 높이고 있다.
- 26) 안동시에 소재하고 있는 채화정에 이와 동일한 개폐방식의 들문이 있다.
- 27) "불발기"는 밖에서 불빛을 알아보게 한다는 뜻에서 유래된 말임.
- 28) 진보향교, 문암서원, 안동의성김씨 종택.



그림 4. 서악서원
(3분합들어열개 굽넝따살 문 : 명장지)

이 형식은 청방간 경계벽을 한 칸 또는 두

간으로 구분한 柱間에 명장지인 들어열개 문을 시설한 것으로 5개소에서 나타났다. 서악서원의 형식은 옛 흔적²⁹⁾을 통해서 복원한 것이다.

주간 전체 또는 중앙부³⁰⁾에 2분합·3분합·4분합의 세살 들문이 나 있다. 이들 세살 들문은 필암서원만 굽널을 들이지 않은 때살이고 나머지는 모두 문짝 하부에 굽널을 둔 굽널때살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전통목조건축에서 청방간 출입문에 굽널을 들이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필암서원의 형식은 보기도분 예라 하겠다.

Ⅲ형식은 I·Ⅱ형식의 맹장지보다 개방감이 높은 입면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Ⅲ형식 중에서 문짝수가 적은 학초정과 추원재의 맹장지 2

분합 들문은 Ⅱ형식의 맹장지 2분합 들문³¹⁾의 바깥쪽 중이를 없애고 그 하부에 굽널을 들인 모습으로 나머지 3·4분합 들문보다 앞선 시기에 나타나고 있음이 주목된다.

한편 서악서원은 들문이 3분합 여단이 문으로 개변된 것을 옛 흔적을 바탕으로 복원한 것이다.

이처럼 들문을 후대에 여단으로 바꾼 예를 I형식의 추원당(A₁·A₂)에서도 찾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또 다른 창호형식 변천의 하나로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창호를 맞춘은 上 연귀·下 맞댄이 1개소이고 나머지는 모두 上·下 맞댄맞춤이다.

이상의 맹장지 들문인 Ⅲ형식은 17C 중반에서 20C 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4. 들어열개 窓戶形式의 綜合的 分析 및 變遷

표 3. 들어열개 창호형식의 시기별 분포

()는 창호의 추정조성연대

시기 형식	16C	17C	18C	19C	20C
I	1. 청암정(창건:1526) 2. 탁청정(창건:1541) 3. 후조당(창건:1560) 4. 옥산서원(창건:1572) 5. 도산서원(창건:1575)	6. 금오서원(이전:1602) 7. 옥의당(창건:1619) 8. 회덕 동춘당(창건:1643) 9. 무안 박씨 무의공파 종택(창건:1650) 10. 효곡재사(창건:1673)	11. 추원당(창건:1700)		
II	1. 안동 의성김씨 종택(복구:1590)	2. 도동서원(이전:1605) 3. 소수서원(중건:1602)	4. 옥동서원(창건:1716)	5. 진보향교(이전:1896) 6. 신령향교(중건:1852) 7. 노강서원(중수:1883)	8. 둔암서원(이전:1970)
III		1. 학초정 및 정침(창건:1650) 2. 추원재 및 사당(창건:1656)		3. 서악서원(중수:1810)	4. 청하향교(중수:1964) 5. 필암서원(중건:1941)

29) A'의 문 윗틀에 옛 들쩌귀 흔적과 A'쪽 보퓌에 옛들쇠가 남아 있음.

30) 필암서원은 경계벽을 좌·우 양간으로 구분한 타전물과 달리 한 간으로 넓게 잡고 그 중앙에 창호를 시설하였다.

31) 신령향교의 A'₂, 도동서원의 A₂·A'₂, 노강서원과 소수서원의 A·A'들문.

표 4. 창호틀 맞춤의 형식 및 시기별 분포

구분	창 호 틀 맞춤			
	上: 연귀, 下: 연귀	上: 연귀, 下: 맞댄	上: 안연귀, 下: 맞댄	上: 맞댄, 下: 맞댄
형식	16C	(16C~19C)	17C	(16C~20C)
I	1	6	1	3
II	.	2	1	5
III	.	1	.	4
계	1	9	2	12

*上 : 좌·우 문설주와 웃틀과의 맞춤
 下 : 좌·우 문설주와 밑틀과의 맞춤



(1) I형식은 가장 이른 16C 초에서 18C 초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추원당을 제외한 나머지가 16~17C에 집중되어 있다. 세 형식 중에서 가장 앞선 형식인 I형식은 들어열개 문짝 가운데에 창을 부설한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I형식 중에서 맹장지 들문은 문을 닫을 경우 들문짝은 벽체 역할을 하고 부설창의 창기능만 갖게 된다. 이와같은 맹장지의 I형식은 폐쇄시 졸고³²⁾에서 다룬 청방간 개구부형식 중에서 가장 앞선 형으로 밝혀진 窓+門 I形式³³⁾과 그 모습이 유사하다. 특히 맹장지 외쪽 들문의 경우는 폐쇄시 거의 흡사하다.

한편 시기적으로 窓+門 I형식보다 1C정도 늦게 나타난 이 I형식도 졸고³⁴⁾에서 밝힌바와 같이 출입을 제한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벽체에 창을 낸 것보다는 약하다. 따라서 I형식은 절제와 규범을 중히 여기던 조선시대 전반기의 유교전통에 교화된 사회에 적용한 건축적 유형의 한 예로 판단된 窓+門 I형식보다 그 적응력이 다소 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I형식은 古式의 영쌍창을 부설한 것이 가장 빠른 시기에 나타나고 있으며, 또 맹장지가 시각적 개방성을 띠고 있는 굽널 명장

지보다 앞선형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후대로 오면서 가운데설주(영)가 없어지고 개방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읽게 한다.

(2) II형식은 I형식보다 다소 늦은 16C 후반에 나타나 I형식이 사라진 20C 후반까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II형식은 강한 폐쇄감을 느끼게 하는 입면성을 띤 맹장지 들문을 시설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부설 창이 없을 뿐 I형식의 맹장지 들문과 그 모습이 유사하다. 또한 II형식 중에서 문짝 가운데에 불발기를 꾸민 것은 그 기능이 다를 뿐 얼핏보아 부설 창을 낸 I형식처럼 보인다. 이처럼 I형식의 부설 창을 없애고 그 대신 비교적 설치하기 쉬운 불발기를 내고 있음을 통해서 창호형식이 점차 간소화되고 있는 일면을 읽을 수 있겠다.

이상을 통해서 II형식은 I형식보다 늦게 나타난 형식이며, 또 기능적·기술적으로 복잡한 부설 창을 완전히 없애거나 간단한 불발기로 대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III형식은 I·II형식보다 늦은 17C 중반 이후부터 20C 후반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III형식은 II형식인 맹장지 들문의 문짝 바깥쪽 종이를 떼어내고 그 하부에 굽널을 들인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세 형식 중에서 시각적으로 강한 개방성을 띠고 있다.

이와같은 III형식 중에서 비교적 빠른 시기에 속한 2분합 들문의 학초정과 추원재가 나머지 3·4분합 들문보다 앞선형으로 드러나고 있다.

32) 정명섭, 앞 박사학위논문.
 33) 窓+門 I形式은 대청과 방 사이의 경계벽 左·右 柱間에 각기 窓과 門을 낸 것으로 15C 초에서 18C 후반에 속한 건물들에 나타났다.
 34) 정명섭, 앞 한국주거학회논문.

이는 무엇보다도 학초정과 추원재가 I 형식에서 가장 늦게 나타난 효곡재사와 추원당과 시기적으로 비슷할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이 부설 창이 없을 뿐 거의 같음을 통해서도 앞선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록 그 예는 적지만 후대로 오면서 문 쪽수가 많아지는 경향을 감지할 수 있다. 한편 3-3에서 서악서원과 추원당(I 형식)이 후대 분합 여담이로 개변되는 추이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이는 개폐의 편의에 따른 변화로 생각되는데, 이를 통해서 편리성 추구의 일면을 읽을 수 있겠다.

이상의 III형식은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오늘날 건립되고 있는 전통목조건축물의 청방간에 거의 대부분 명장지 들 문을 시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세 형식 중에서 가장 늦게 나타나 보편화된 형식이라 생각된다.

(4) 창호들 맞춤은 표 4와 같이 시기적으로 上·下 연귀 1개소, 上 연귀·下 맞댄 9개소, 上 안연귀·下 맞댄 2개소, 上·下 맞댄 12개소 순으로 그 추이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적 선후는 즐고³⁵⁾에서 밝혔듯이 집중적 연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특별히 공을 들여야 하는 연귀맞춤이 빠른 시기의 건물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고 비교적 쉽게 결구할 수 있는 맞댄·안연귀 맞춤이 후대로 오면서 널리 채용되고 있다는 짐작을 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전통창호의 노출 울거미가 거의 대부분 연귀맞춤으로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문틀(문일굴)의 연귀맞춤은 다른 맞춤과 달리 울거미의 연귀맞춤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아한 멋을 느끼게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형식의 전체적인 변화과정을 보면 I, II, III형식 순으로 변천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러한 변천을 통해서 古式의 영쌍창과 부설창이 없어지는 경향³⁶⁾과 함께 폐쇄적인 맹장지가 개방적인 명장지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후대로 오면서 문쪽수가 많아지고 들어열개보다 개폐가 쉬운 여담이로 변화되고 있음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상의 변천을 통해서 청방간에 시설된 들어열개 창호가 점진적으로 개방성을 띠면서 편의 위주의 실용적 형식으로 바뀌어지고 있음을 읽을 수 있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청방간 들어열개 창호형식의 대체적인 흐름을 계통화한 변천추정도는 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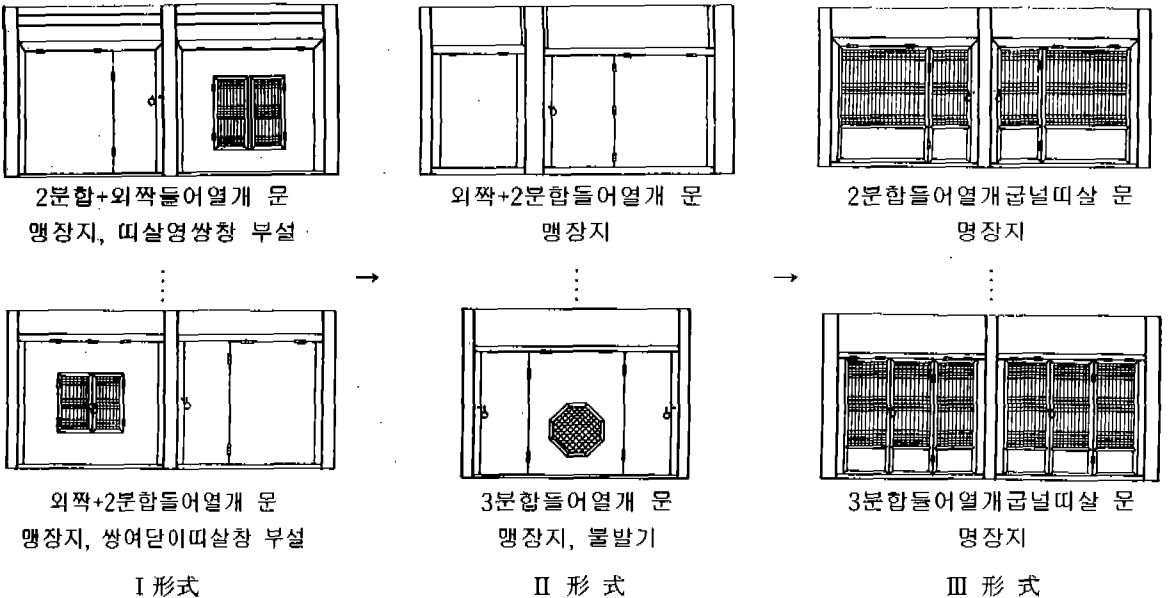


그림 5. 들어열개 窓戶形式의 變遷 推定圖

35) 정명섭, 앞 한국주거학회논문

36) 영쌍창과 부설창이 18C 이후부터 그 모습을 감추고 있는데, 이는 즐고(정명섭, 박사논문, 학회 논문)에서 다룬 청방간의 窓+門 I 형식과 대청 배면 창호에서 가운데설주와 창이 사라진 시기와 같다.

5. 結 論

한국전통건축의 廳房間에 시설된 들어열개 창호를 대상으로 그 형식을 고찰 분석하여 대체적인 흐름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I형식은 들어열개 문짝 가운데에 창을 부설한 특징을 지닌 것으로 세 형식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인 16C초~18C초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 형식 중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형식으로 부설창을 古式의 영쌍창으로 한 것은 한국전통건축에서 보기도문 창호형식으로 귀중한 자료라 생각된다.

2) II형식은 I형식의 특징인 부설 창을 없애거나 부설 창 대신 설치하기 쉬운 불발기를 낸 명장지 들문으로 I형식보다 다소 늦고 III형식보다는 빠른 형식임을 알 수 있다. 부설 창 대신 꾸며진 불발기는 창호형식이 후대로 오면서 점차 간소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3) I·II형식보다 늦은 17C 중반부터 나타난 III형식은 명장지 굽넝따살 들문으로 세 형식 중에서 가장 개방적 입면성을 띠고 있을 뿐 아니라 19C 이후부터는 문짝수가 그 전보다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III형식은 근년의 전통목조건축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20C 이후에 보편화된 형식으로 생각된다.

4) 창호를 맞춤은 특별히 공을 들여야 하는 연귀맞춤이 비교적 결구가 쉬운 안연귀·맞댄맞춤보다 이른 시기에 채용되고 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따라서 청방간에 시설된 들어열개 창호형식은 I, II, III형식의 순으로 변천된 대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또 후대로 오면서 문짝수가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천을 통해서 명장지 들문에 부설 창을 낸 엄숙하고 폐쇄적인 형식이 점차 명장지 굽넝따살 들문의 유연하고 개방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룬 들어열개 창호는 한국전통목조 건축물에 있어 假壁역할을 겸한 다목적의 주요한 구성요소일 뿐 아니라 중국·일본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것으로 차후 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參 考 文 獻

1. 金一鎭, 韓國建築의 極雙窓에 관한 研究, 東國大 博士論文, 1988.
2. 拙稿, 朝鮮時代 鄉校 및 書院建築의 廳房間 開口部形式 變遷에 관한 研究, 嶺南大 博士論文, 1992
3. 拙稿, 傳統建築 大廳 背面 開口部形式의 變遷에 관한 研究, 韓國住居學會 論文集, 제 5 권 제 2호, 1994. 12.
4. 拙稿, 慶北地域 鄉校建築 明倫堂의 開口部 變遷에 관한 研究, 韓國建築歷史學會 論文集, 창간호 1992. 6.
5. 拙稿, 書院建築 講堂의 開口部 變遷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 論文集, 제 8권 제 10 호, 1992. 10.
6. 朴正雨·玄宅洙, 空間의 演出(窓), 기문당, 1987. 5.
7. 張順鏞, 韓屋設計의 方法論的 考察(V), 建築士, 1993. 2.
8. 황의수, 한국의 고건축(창호), 인테리어, 1988. 6.